

# 5·18 추모제 첫 초청 국민의힘 “진정성 인정에 감사”

### ‘지역대학 체질개선 공교육 강화 토론회’ 서동용 의원, 전남대서 개최

#### 41년 만에 정운천·성일종 5·18민주묘지 찾아 “너무 늦게 보답...여야 통합 정신도 활성화”

보수정당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공식 초청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월 단체와 유가족 등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진정성을 인정해준 만큼, 마음가짐을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18 제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 유족회 초청으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국민의힘 정운천(전북 고창,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유족들과의 현장 만남에서 “초

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이 5·18유족회가 주관하는 추모제에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은 5월 항쟁 41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얼마 전 박관현 열사의 누님인 박행순씨가 서울에 오셔서 눈물바람을 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이젠 공법단체도 됐고, 관계자들(형제·자매)이 단체에 회원(가입)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선 의원인 두 의원은 또 “광주가 자유의 공기를 대한민국에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보답해서 죄송하다” “(북은 감정 등이) 다 녹아내려서 여야 간의 통합의 정신도 활성화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저희들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 만큼 마음가짐을 다 잘 해서 나아가겠다. 국가를 위해 빛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유족 측 안성례 전 5·18어머니회 회장은 “유족의 한을 풀어주셔서 고맙다. 거기서 매듭이 잘 풀렸다”며 “이젠 역사 발전이 될 거 같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김종민 전 비대위원장의 민주묘지 무릎 사죄 이후 5·18 관련 단체들과 10여 차례에 간담회를 갖는 등 5·18법안 통과에 매진했고, 성 의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한 국민의힘 (사진 왼쪽부터)성일종·정운천 의원이 유족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원은 국회 정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으며 공법단체 승격과 단체회원

자격 확대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선욱기자

#### 윤석열, 차기 대선 다자·양자대결 모두 이재명에 앞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다자대결과 양자대결 양쪽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 33.0% 이재명 경기지사 26.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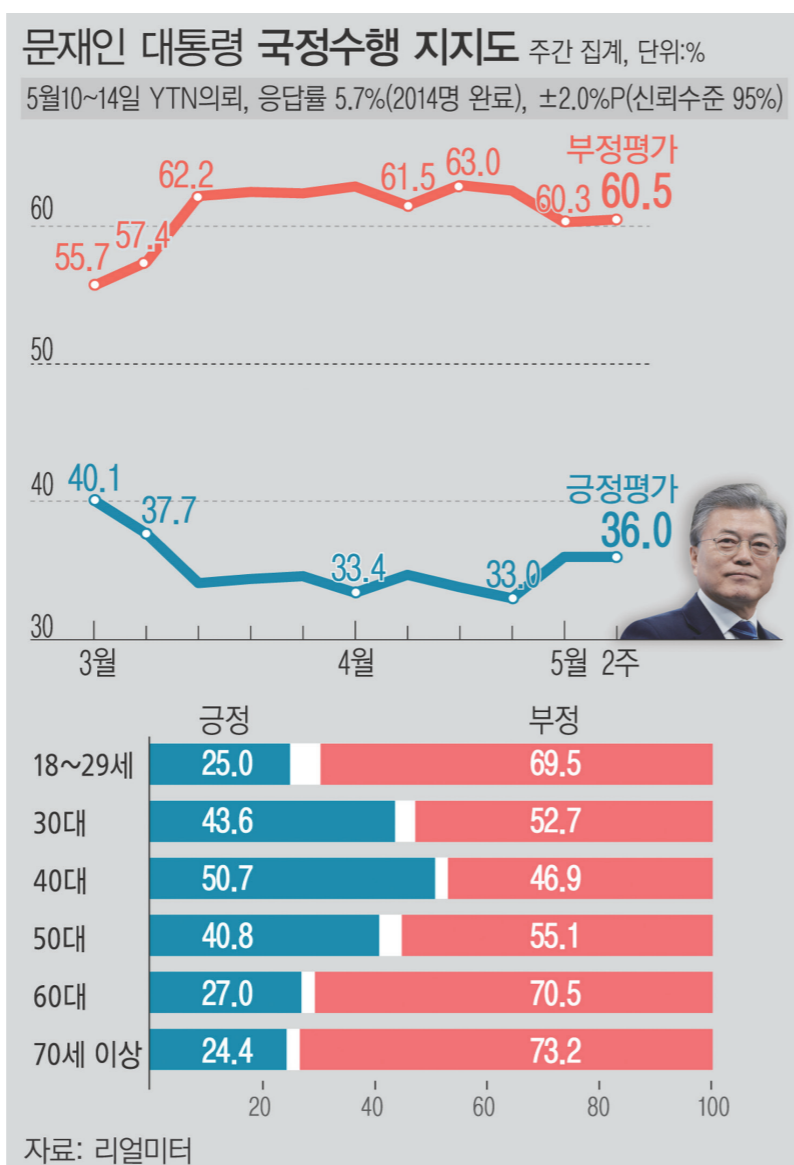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모두 전주 대비 각각 1.2%포인트, 이 지사는 4.2%포인트 오르며 동반상승했다. 격차는 6.5%포인트였다.

지난 16일자 머니투데이 더300과 미래한국연구소 의뢰 PNR (퍼피플네트웍스)가 실시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총장 35.1%, 이재명 경기지사 28.3%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 이재명’ 가상 양자대결에선, 윤 전 총장 49.0%, 이 지사 41.7%로 나타났다. 격차는 7.3%포인트였다.

‘윤석열 대 이낙연’ 양자대결에선, 윤 전 총장 53.2%, 이 전 대표 39.8%로 격차는 13.4%포인트였다.

‘이재명 대 홍준표’ 양자대결에선, 이 지사 48.6%, 홍 의원 36.1%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36%...부정평가 60.5%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36%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5월2주차(10일~14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36.0%(매우 ভাল 18.3%, 잘하는 편 17.7%)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오른 60.5%(매우 잘못함 45.2%, 잘못하는 편 15.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3.5%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24.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경우 진보 진영에서는 긍정평가가 오르고(62.5%→68.2% 3.0%p ↑),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 평가가 오르는(78.9%→81.8% 2.9%p ↑) 등 진영간 결집력이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벌여진 여야 공방, 여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는 하락(31.1%→29.0% 2.1%p ↓), 부정평가는 상승(66.4%→68.7%

2.3%p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는 충청권(4.8%p ↑)과 인천·경기(4.3%p ↑), 30대(6.0%p ↑), 무당층(2.4%p ↑), 진보층(3.0%p ↑), 노동직(11.7%p ↑)·가정주부(2.3%p ↑)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부산경남(5.1%p ↑)·호남권(4.1%p ↑), 남성(1.7%p ↑), 70대 이상(3.1%p ↑)·60대(3.0%p ↑), 정의당 지지층(5.0%p ↑), 보수층(2.9%p ↑)·중도층(2.3%p ↑), 학생(6.6%p ↑)·사무직(3.0%p ↑)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1%포인트 오른 35.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3%포인트 내린 29.9%로 집계됐다. 양 정당 트로, 오차범위 밖 결과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등 상황 속에서도 진보층의 지지율(57.0%→57.2% 0.2%p ↑)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도층의 지지율(25.2%→25.1% 0.1%p ↓)도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서는 보수층의 지지율(57.6%→58.7% 1.1%p ↑)은 소폭 상승했으나, 중도층 지지율(39.8%→38.8% 1.0%p ↓)은 소폭 감소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